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라합의 믿음

성경: 여호수아 2장 8-15절

Tag:

8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수2:8-15)

여호수아 2장에는 라합이야기가 나온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다.

그런데 여녀 기생과는 다르다.

그녀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 집안의 어른처럼 행세하였다.

그녀의 집은 성벽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한마디로 집이 성벽과 붙

어서 이어져 있었다고 보면된다.

과거 성벽들은 그 안이나 위에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장비며, 병사들이 쉬며 밥을 먹는 공간까지도 갖춘 성벽들이 있었고, 탑을 세워둔 곳도 있었다.

짐작컨대 라합의 집은 일종의 휴게공간이었을 것이다.

상인들과 병사들을 위해서 음식도 제공하고, 오락도 제공하였을 것이다. 일종의 가업인 셈이다.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여인은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강단도 있었으며, 사교적이고 남성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시로서나 지금으로서도 능력있는 여인이라는 평가를 받을만 하였다.

또한 위기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재빨리 하는 걸 보니 매우 용감한 여인이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한치의 손해볼 것 없는 협상을 하는 걸 보니 윈윈 셈법에 대한 계산능력도 있는 여인이라 할 수 있다.

그녀는 또한 틈틈이 옥상에 삼대(아마, 린넨, 옷감을 만드는 풀)를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매우 부지런한 여인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가지 흠이라면 보통 여염집 여인이 아닌, 일터에서 웃음을 파는 기생이었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러나 율법적 이해가 아닌, 구원을 위한 갈망으로 이해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해진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영도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 맞은편 요단 동편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하였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실 차례인데, 전쟁을 통해서 탈취해야만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와주실터인데 가나안에서 살고있는 자들에게는 저주스러운 전쟁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은 그동안 이들의 죄악이 차고 넘치게 되어 이제 멸망받고 쫓겨

나는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시범 케이스가 여리고성인 셈이다. 아직은 가나안이 부족국가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는 쉽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일단 정탐꾼을 보냈다. 정탐꾼의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는데, 후에 라합이 살몬과 결혼했다는 기록이 나오므로, 아마도 정탐꾼 중에 살몬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여리고성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왜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애굽의 열가지 재앙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왕 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성벽위에서 주막을 운영하며 오고가는 상인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들었을 라합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믿었다. 비록 그녀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열보고 있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정탐꾼을 보내도록 감동하셨고, 이때 자원하는 자 살몬을 여리고성에 침투시켰다.

이들은 틀림없이 상인인척 했겠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결국에는 정체가 들통나서 여리고성 왕에게도 첩보가 접수되었다.(성경에는 이 첩보를 전달한 자가 그날 저녁에 이들이 주막에 들었다고 보고했으나, 사실은 며칠전에 잠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이 사실을 간파한 자는 라합이었다. 그녀는 전광석화처럼 그동안 소망하던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사실이 반드시 왕에게 알려지게 될 것도 짐작하였고, 재빨리 대비책을 마련하였다.

그래서 아마도 라합은 살몬에게 이제 살 것은 사고, 팔 것은 팔았으니 오늘은 해가 지기 전에 다른 곳으로 가봐야 하겠다고 하면서 성

밖을 빠져 나가는 척 하고, 뒷문으로 들어와 옥상으로 올라가 삼대
속에 숨어 있으라고 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왕의 군사들은 들이닥쳤고, 낮선 이방인을 찾았다.
라합은 그들이 조금 전에 성밖으로 나간다고 했으니 아마 빨리 뒤쫓
아가면 만날 수 있을거라고 한다. (라합의 거짓말은 나쁜 것일까?)

군사들은 부리나케 정처없는 뒤를 쫓는다.

이제 라합은 밤중에 몰래 옥상에 올라가서 살몬과 계약을 맺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이 계약서에 해당한다.

8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
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 라합의 신앙고백. 하나님은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 여리고 사람들의 심정. 두려움으로 가득하다. 낙담되어 있다.
- 견고한 성도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을 것이다.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
라

-출애굽 사건과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들
었음.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
서도 하나님이니라

- 라합의 신앙고백;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 유일하신 하나님. 상천하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런데 내가 너희 생명을 보호 하였으니, 이제 나와 내 식구들의 생명을 보존하라.

-나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진노를 피하기 원하노라.

-라합의 집이 구원이 방주인 셈. 라합만을 위한 구원의 방주.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식구들을 위해 목숨을 건 딜을 하였음. 자기 식구들을 사랑함. 그들을 위해서 희생함.

14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살몬의 대답;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다.(웬지 사랑고백?)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15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창문에 줄을 매달아 도피하게함.

-라합은 후에 창문에 붉은 색 줄을 매달아 자기의 집이 도피처인 것을 알림.

-라합의 신앙고백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함.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노아의 이야기와 같이 라합의 이야기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날마다 구원얻는 삶을 살아가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이새는 다윗을 낳음.(마1:5)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리더의 기초적 근성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0절

Tag:

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경건함.

-그러나 온유하게 사람을 바로잡으라.

-너 자신도 반성하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먼저 희생하며 짐을 져 주라.

-세상은 내 할 일, 네 할 일 나누다 보면 되는 일 없다.

-게으른 세상은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 비문명국 사람들이 그렇다.

-그리스도의 법은 희생하며 섬기는 자가 승리하는 법.

3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지 말라.

-입으로 먼저 나서지 말라.

-입으로 축복하되, 대장되지 말라. 투자하되 미리 소비/헌금하지 말라.

4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 책무에 충실하라. 보잘 것 없어 보여도 기초적 성실을 먼저 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신다.

-내가 이까짓 거 해야 하나? 해야 함. 겸손함부터 배우라.

5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짐을 지라;하기 싫고 뒤로 미룰 일. 그러나 내가 해야 함.

6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곁에 계신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중요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항상 곁에 계시는 분처럼 행동하라.

8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라.

-그 선행이 발각되지 않는 것으로 만족을 삼으라.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하라.

10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6:1-10)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착한 일을 하라.